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기

영신수련의 「왕의 부르심」 관상에서 이냐시오는 “나와 함께”라는 뜻을 지닌 스페인어 코미고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함께 일한다. 심지어 이냐시오식 피정에서도 피정을 주는 사람과 피정자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냐시오는 하느님께서 자신을 봉사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다. 처음에 그가 가진 생각은 홀로 시작하는 것이었다. 혈혈단신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한다는 것은 당시 기사도의 이상이었기에 이냐시오는 이 방식을 그리스도인으로 서 새 삶을 시작하는 자신에게도 적용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기사로 여겼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성공하지 못했다. 혈혈단신의 순례자로 이스라엘 성지에 갔으나 어쩔 수 없이 귀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그는 영성 생활에 대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의심 많은 종교 재판관들에게 제지당했다. 그들은 영적 통찰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홀로 방랑하는 설교가들에게 깊은 의혹을 품었던 것이다.

이냐시오의 사목 방식의 진정한 변화는 그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은 파리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찾아왔다.

『자서전』에서 이냐시오는 그때 일어난 일을 짚막하게 기록하였다. 그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의 주위에 많은 동료들을 모아들였다.” 이 동료들이 바로 초기 예수회원들이 되었다. 이때부터 이냐시오는 항상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일했다. 탁월한 기량과 재능을 가진 걸출한 회원들이 예수회에 많이 있어 왔지만, 예수회원이나 이냐시오 영성을 따르는 이들의 사목은 항상 협력의 정신으로 이루어져 왔다.

협력은 바로 영신수련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이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실 지도자director라는 말은 잘못된 명칭이다. 이냐시오는 영신수련의 「일러두기」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피정 중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사람은 “지도”보다는 안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하느님과 피정자의 관계가 항상 영신수련의 초점이지만, 이 관계를 피정자 혼자 성찰하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며 그와 협력하여 성찰하는 것이다. 이 안내자는 우리가 성령의 움직임에 민감해져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이 움직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영성 지도자가 하는 일 중의 많은 부분은 기도 안에서 그리고 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불필요한 것은 걸러 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도움으로 우리는 서로 관련 없이 파편화 되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던 일들이 어떻게 유의미한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도자는 우리 삶에 넘쳐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 영성 지도자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기복도 있고, 서로 주고받기도 하는 실제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바로 이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는 「왕의 부르심」 관상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보여 주시는지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를 몸이라는 빼어난 비유로 설명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이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지체들을 그 몸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두 한 지체로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 하느님께서도 모

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1코린 12,18-21,24,25-26)

그리스도인의 사목ministry과 사명mission은 결코 개인 사업처럼 여겨질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언제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및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봉사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의 하나는 바로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이다. 사목은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다. 예수님은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생명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냐시오식 사목 방식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하신(마태 18,20)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냐시오식 봉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바대로 서로 맞물려 있는 이냐시오 영성이 지닌 요소들을 통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시 처음까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흐름이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이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다른
이에게 봉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비전.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큰 그림
을 보고자 노력한다.

실천. 해야 할 일을 한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성찰. 하느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디에 계
시지 않는지 바라본다.

가치.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청한다.

선택. 가능한 행동 수단을 성찰하고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선
택한다.

식별. 우리 마음이 하는 말을 경청한다.

더.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더 나은 것을 하려 애쓴다.

수고. 세상을 구속하고 치유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협력한다.

감사. 모든 것은 선물이다. 감사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퍼지게
한다.